

2018. 10. 19일 오후 5시 기준.

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.	
수정 전	수정 후
비교대조6. 문제편 하이퍼리얼리즘 18 9 16~19번 -18번 선지 누락 -19번 문제 누락	pdf 따로 제공 (새로 입고된 책에는 18번 선지 적용.)
과정3. 해설편 dns 스푸핑 18 6 30~34 -정답과 정답률이 19학년도 6월 30~34로 들어갔음. -34번 해설이 누락되었음.	pdf 따로 제공. (새로 입고된 책에는 적용.) 34번 해설 1: 제조(製造)되는 = ‘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이 만들어 지다.’ v2: 표시(標示)한다 = ‘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이다.’ 3: 발생(發生)된 = ‘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.’ 4: 인정(認定)한 = ‘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.’ 5: 비교(比較)해 = ‘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, 차이점,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다.’
과정4. 문제편 시대에 따른 음악의 반복 방법 09 수 16-19 -문제와 지문에 원형 텍스트가 깨진 부분이 있음.	pdf 따로 제공. (일본에서 텍스트를 읽는 도중에 오류가 난 듯합니다. 수정본 올려드립니다.)
문제해결3. 해설편 위치적 외부성 08 6 19-22 -22번 해설이 누락	22번 해설 ㉔를 다르게 표현하면 ‘경쟁자와 경쟁자 사이’가 돼. 따라서 의미에선 대상들의 사이인 ㄴ이 적당하고, 용례에선 ‘내외간=부부간=부부 사이’인 b가 적당해. ㉕를 다르게 표현하면 ‘만든 적든 얼마간에’가 돼. 따라서 의미에선 선택의 무차별성인 ㄱ이 적당하고, 용례에선 ‘가부간=옳든 그르든’인 c가 적당하지. 따라서 답은 3번
고전 소설2. 해설편 사씨남정기 18 수 23-26 -23번 2번선지 해설과 3번 선지해설이 뒤바뀜.	23번 2: 유모가 황릉묘에 간 것은 사씨가 깨어난 후이고, 사씨를 따라서 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. (새로 입고된 책에는 적용)
분류6. 해설편 돌림힘 16 수A 16-18	18번 해설 4번선지 추가 해설. A에 가해 주는 힘이 제거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

<p>18번 해설 4번선지 추가 해설 필요.</p>	<p>밀어주는 B의 힘만 남지. 이때 알짜 돌림힘의 한 일 = '알짜 돌림힘의 크기' x '회전 각도'이고, 원판이 몇 바퀴 회전하냐는 알짜 돌림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. 따라서 우린 '회전 각도'만 고려하면 돼. 따라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2배야.</p>
<p>갈래복합1 해설편 37번. 1번 선지 수정</p> <p>①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같은 뿌리라는 것은 이 둘의 관계가 +와 -여야 한다는 것이다. 둘 다 난과 관련한 것이므로 대조라고 볼 수 없다.</p>	<p>갈래복합1 해설편 37번. 1번 선지 수정</p> <p>①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같은 뿌리라는 것은 이 둘의 관계가 +와 -여야 한다는 것이다. 또한 옥 같은 뿌리와 화려 광활한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므로 같이 +이거나 -이어야한다. 둘 다 난과 관련한 것인데 옥 같은 뿌리는 +, 화려 광활은 -이므로 대조라고 볼 수 있다.</p>
<p>현대 소설 3 해설편 39번 선지 4번</p> <p>④ ~있었으리라, 있었을 것이다 등을 보면 추측의 진술은 확인할 수 있지만,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.</p>	<p>현대 소설 3 해설편 39번 선지 4번</p> <p>④ ~있었으리라, 있었을 것이다 등을 보면 추측의 진술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은 찾을 수 없다.</p>

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오류	
수정 전	수정 후
<p>분류4. 해설편 통화 정책 18 6 22-24 (상단에 제시하는 문제 범위 오타)</p>	<p>분류4. 해설편 통화 정책 18 6 22-25</p>
<p>비교대조3. 해설편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 32번 정답에 볼드체 없음. *32번</p>	<p>비교대조3. 해설편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 32번 정답에 볼드체 기입. *32번</p>

<p>지니다 =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. [88%] v3: 소지하다 = 물건을 지니고 있다. '보유하다'라면 바꾸어 쓸 수 있음.</p>	<p>지니다 =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. [88%] v3: 소지하다 = 물건을 지니고 있다. '보유하다'라면 바꾸어 쓸 수 있음.</p>
<p>비교대조4. 해설편 사회이론과 사회상황 23번 정답 번호 누락</p> <p>*23번 두 이론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네. 비교 대조 방식의 지문에서 매번 나오는, 아니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야. 비교 대조의 핵심은 공통점, 차이점이기 때문이지. 선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, 마치 주관식처럼 푸는 걸 추천해.</p> <p>지문에서 헤겔 쪽 직업 단체의 특징 찾고, 뒤르켐 쪽 직업 단체의 특징 찾아서 공통점 끌어내면 그게 답이지. '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'이 답 되겠네.</p>	<p>*23번 두 이론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네. 비교 대조 방식의 지문에서 매번 나오는, 아니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야. 비교 대조의 핵심은 공통점, 차이점이기 때문이지. 선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, 마치 주관식처럼 푸는 걸 추천해.</p> <p>지문에서 헤겔 쪽 직업 단체의 특징 찾고, 뒤르켐 쪽 직업 단체의 특징 찾아서 공통점 끌어내면 그게 답이지. [86%] v1: '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'이 답 되겠네.</p>
<p>분류6. 해설편 돌림힘 16 수A 16-18</p> <p>18번 해설에 어구 삭제. 결과가 시계 반대 방향이 된 것은 돌림힘의 크기($N \cdot m$)가 B가 더 컸기 때문이야. 힘(N)이 같은데 <u>거리(m)가</u> B의 거리가 A의 두 배이니 당연한 결과지.</p>	<p>18번 해설에 어구 삭제 후. 결과가 시계 반대 방향이 된 것은 돌림힘의 크기($N \cdot m$)가 B가 더 컸기 때문이야. 힘(N)이 같은데 B의 거리가 A의 두 배이니 당연한 결과지.</p>
<p>현대시5 해설편 문학적 시간, 고풍 의상, 결빙의 아버지 2018 6 25-29 (상단에 제시하는 문제 범위 오타)</p>	<p>현대시5 해설편 문학적 시간, 고풍 의상, 결빙의 아버지 2018 6 26-29</p>
<p>고전소설1 적성의전 2018 6 35번 정답에 볼드체 없음.</p> <p>③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가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는 부분에서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을 알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</p>	<p>③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가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는 부분에서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을 알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</p>